

<단편소설>

비터스윗

수련실 안의 공기가 맑지 않았다. 새벽녘 한기를 가득 머금은 바닥은 물기로 흥건했다. 숨 없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땀방울이 그 안에 섞여 얼룩져 있었다. 인도 특유의 향신료 마살라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정체모를 모든 냄새들이 뒤엉켜 온 몸에 끈적하게 들러붙는 듯했다. 그래도 나는 그 안으로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요가 매트를 펼쳤다.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직사각형의 세계. 그 위에 서서 두 눈을 감고 만트라를 외운 뒤 요가 수련을 시작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땅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는 과정. 문득 이 작은 요가 매트 밖의 세계가 모두 사라지고 나는 그 안에 오롯이 존재하는 듯했다. 다른 사람도, 다른 세계도 보이질 않고 오직 나 자신만 바라볼 수 있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요가가 좋았다. 온 몸의 구멍, 모공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반응하며 벌어지고 조여드는 감각 속에 나는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아사나 수련을 마친 뒤 매트를 들고 명상실로 들어갔다. 그 안에 다시 매트를 펼치고 누워 사바사나, 송장자세를 했다. 어느새 해가 다 떠올라 날이 환히 밝아 있었다. 창문 사이를 파고드는 미풍에 한기가 서려 몸에 수건을 덮은 뒤 다시 누워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의 세계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았다. 그 안으로도 빛이 새어 들어오고, 소리가 들려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이 명상실 안에 나와 같은 자세로 누워 나와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을 진 언니를 떠올렸다. 아니야, 모두 같지만은 않을 거야. 진 언니는 언니대로, 나와는 다른 것들을 느끼겠지.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도 비슷할 거야. 나와 같이 한기를 느끼고, 나와 같이 몸에 수건을 덮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무와 다시마, 말린 표고버섯을 넣고 끓인 채수에 감자와 애호박을 자박자박 썰어 넣어 밀가루 반죽을 띄운 수제비를 만들겠지. 뜨거운 그릇을 양손으로 감싸 들고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어 식힌 국물을 들이마시면 뜨거운 기운이 뱃속 타고 내려가, 언니, 속이 다 시원해. 나는 말하고, 그러면 언니는 소리 없이 미소 지을 것이다.

“더 먹어. 뭐 더 먹고 싶은 것 없어? 계란이라도 더 부쳐줄까?”

“아니야, 언니. 단 게 먹고 싶어.”

그러자 진 언니는 찬장 안에서 초콜릿 상자를 꺼내어 식탁에 올리고, 냉장고 안에서 요구르트도 꺼내어 왔다.

“어제 새로 만든 건데, 좀 쓸 거야.”

언니가 초콜릿 상자의 뚜껑을 열며 말했다.

“왜 이렇게 쓴 걸 먹어?” 그렇게 물으며 나는 초콜릿 조각을 하나 집어 입에 넣고 깨물어 씹었다. “딱딱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쓰고 단단한 게 좋더라.”

진 언니의 말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다.

“그래? 나는 쓰고 딱딱한 건 잘 못 먹겠어. 꼭 크레파스 씹는 것 같지 않아?”

“하하, 그런가? 그러네, 그러고 보니.”

진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그릇에 요구르트를 덜어 나무 수저와 함께 내 앞으로 밀어 주었다. 내가 수저를 손에 들고 요구르트 그릇을 집자 언니가 서둘러 말했다.

“이것도 그냥 먹으면 신맛만 날 거야. 망고 잼이랑 석류 잼이 있는데 섞어 줄게, 어떤 걸로 먹을래?”

“아무거나 괜찮아. 언니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 줘.”

그 말에 진 언니는 석류 씨앗이 담긴 유리병을 냉장고에서 또 꺼내어 왔다. 그러고는 그것을 나무 수저로 조심스레 떠서 요구르트 그릇 안으로 넣어주며 말했다.

“이건 사실 잼이 아니라 청이야. 석류 씨앗을 골라내서 설탕에 사나흘 정도 재워두면 딱 알맞

게 돼.”

새하얀 요구르트 위에 붉은 석류 청을 띄우자 마치 눈발에 떨어진 동백꽃 같아 보였다. 나는 나무 수저로 그것을 휘저은 뒤 한가득 떠서 입에 넣었다.

“나는 역시, 달고 부드러운 게 좋아.”

그렇게 말하며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그리고 진 언니는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너무 열어서 아무런 색깔도 찾아볼 수 없는 미소. 나는 그런 진 언니의 미소를 볼 때마다 새하얀 모래가 손가락 사이에서 흘러나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조급함이나 분주함 없이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해내는 진 언니의 그 손짓과 표정들을 나는 사랑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까지도 가없이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따로 명상을 하지 않고, 진 언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초콜릿 조각을 하나 더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로 씹어 부순 뒤 꿀꺽 삼켰다. 부서진 초콜릿 조각들과 석류 씨앗들이 입 안에서 서로 부딪치고 부서졌다. 그것들을 목구멍 사이로 밀어 넘기며 온 몸의 근육과 관절 사이로 그 파편들이 파고드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고 그 안에 촘촘히 붙어 있기를 나는 바랐다.

“더 많이 먹고 싶어.”

“응? 뭐를?”

나는 언니의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살며시 미소 지었다.

커튼을 모두 드리워 어두운 집 안에 희색 불빛만이 한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오늘도 준은 랩톱을 붙들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가 태우다 만 위드(Weed) 가루가 탁자 위에 흩뿌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미간을 찡그렸다. 게임에 하고 있는 준은 내가 들어온 것을 알고도 나를 돌아보거나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나는 준이 앉아 있는 탁자 앞으로 가 커튼을 열어젖혔다. 아니나 다를까, 준이 벌떡 일어나 커튼을 잡아채며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이 꼴을 좀 봐, 연기가 자욱하잖아. 나는 이 냄새가 싫어.”

내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도 준은 아랑곳 않고 커튼을 다시 드리우고는 자리에 앉아 게임만 했다. “도대체 환기는 언제 하라는 거야?” 내가 묻자 준은 이따가 나갈 때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나갈 거라고 대답했다. 나는 준이 아침으로 먹고 탁자 위에 그대로 둔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빵과 계란을 굽고 그대로 놔둔 프라이팬과 피넛버터 병, 과도 등이 난잡하게 조리대 위에 올라와 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것들을 치우고 싱크대 위에 비눗물을 풀어 설거지를 시작했다.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이럴 때마다 준은 나에게 이따가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지만 그 언급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내가 먹고 어지른 것들은 내가 직접 좀 치우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도 지쳐 이제는 그런 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번번이 싸움으로 번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치우고 내 몸이 힘든 게 훨씬 더 마음 편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의 물기를 닦아낸 뒤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웠다. 잠시 눈을 붙이고 쉬어보려고 하면 어김없이 준이 실실 쪼개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지나, 잇즈 미.”

그러고는 내가 누워 있는 침대 안으로 기어 들어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젓가슴을 주물렀다. 일본인인 준은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에 모두 능통했다. 하지만 나는 일본어를 못해 대부분의 대화는 한국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영어를 조금씩 사용했다. 준을 처음 만난 곳도 그가 일하고 있는 호텔에서였다. 호텔 투숙객과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설된 요가 수업에 나는 2년 전 강사로 취직했고, 그곳에서 준을 만났다. 그의 진짜 이름은 마즈준이었으나 모두들 그를 준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내가 맡은 요가 수업을 관리하는 매니저이기도 했다.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 중에서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를 통해 수업을 미리 예약했다. 매달 내 수업료를 입금해주고 수업에 필요한 물품이

나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도 준이었다. 그러던 준이 언젠가부터 시간을 내어 내 수업에 들어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준은 유니폼 슈트를 벗고 나니 어깨가 안으로 많이 굽어 있고 척추도 구부정했다. 골반 또한 매우 뻣뻣해 제대로 따라할 수 있는 요가 동작이 거의 없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주어야 그가 요가 동작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봤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요가를 배우러 왔다.

빼빼 말랐지만 서글서글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는 준은 애초에 남자다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다. 인도에서 준을 처음 본 진 언니는 “재는 성욕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작게 속삭일 정도였다. 그런 걸모습과는 달리 준은 시도 때도 없이 섹스를 원했다. 자신의 숙소에서는 물론 일하고 있는 호텔에서든 이따금씩 마스터키를 가지고 와 빈 방에서 몰래 섹스를 하자고 졸라댔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적에도 수시로 내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다른 사람들의 이목조차 신경 쓰지 않고 섹스를 밝혔다.

내가 인도의 요가학교로 연수를 가겠다고 하자 준은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어 나를 따라나서겠다고 했다. 나는 매우 기뻐했다. 인도는 치안이 좋지는 않은 나라이기에 둘이 함께 다니면 안전할 것 같았고, 월세와 생활비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내는 게 더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연인과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로망이기도 했다.

낭만이 모두 깨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유리창 깨지듯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지는 않았다. 아니, 차라리 그랬더라면 모든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좀 더 쉽게 깨지고, 좀 더 쉽게 치워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도 않아 더 어렵고 불편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벽 한쪽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놔두는 격이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외면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금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 금 때문에 벽이 완전히 갈라져 집이 무너져 내렸을 때야 애초부터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게 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갈라진 벽은 다시 붙일 수 없고, 그러므로 무너진 집 또한 다시 세울 수 없었다. 산산이 부서진 잔해 앞에서 나는 그만 뒤돌아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어떤 일인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이 잔해들이 비와 바람에 쓸려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날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옷을 벗고, 진의 옷도 벗겼다. 아직 발기되지 않은 진의 성기를 손으로 붙들고 흔들며 단단하게 세운 뒤 입에 욱여넣었다. 진의 성기가 내 목구멍을 타고 넘는 오럴 섹스는 소름끼치도록 싫었지만 좀체 젖지 않는 나의 질 속에 그의 성기를 넣으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성기 주변에 타액만 겨우 적시듯 문지른 뒤 곧바로 머리를 들어 올리고 조금 전까지 내 입 속에 있던 성기를 질 입구에 대고 문질러 내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 위에 앉아 움직일 기운도 나질 않아 곧바로 체위를 바꾸고 가만히 누워 그가 빠르게 사정하기만을 기다렸다.

좋아하지도 않는 섹스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섹스를 거부할 때마다 어김없이 닥쳐오는 그의 짜증과 투정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섹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그는 이제 내가 변했고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을 냈다. 그러고는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위드를 태우며 종일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시위를 대신했다. 내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곳 인도에 요가를 배우러 왔고, 요가에 많은 체력과 신경을 쏟아야만 하기에 다른 것들까지 해낼 기운이 없는 것뿐이라고 말해도 그는 믿지 않았다.

그의 화가 풀리려면 다시 섹스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섹스를 하자고 말해도 그는 쉽게 화를 풀지 않았다. 너는 이거 싫어하잖아, 싫는데 억지로 하지 마, 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가 거부하고 나섰다. 아니야, 내가 정말로 원해서 그래, 라고 거짓말하며 그를 보채면 그는 정말 마지못해 하는 듯 억지로 섹스를 하고도 마음을 풀지 않았다. 그와 지금 당장 헤어져서 두 번 다시 안 볼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와 함께하는 생활과 관계를 끊

을 수가 없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일단 잘 지내기만을 나는 바랐다. 그렇게 그와 잘 지내려면 나는 그와 섹스를 해야 했고, 그를 좋아해야 했다.

초콜릿 만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자 진 언니는 정말로 보고만 있어 달라고 말했다. 자신이 초콜릿을 만들 때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만드는 것은 혼자 다 할 테니 그저 보고만 있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언니의 말이 도움 받기 미안해 예뻐 거절하는 표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진 언니는 자신이 초콜릿을 만들 때 누군가 옆에 있는 것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내가 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락한 것일 뿐, 정말로 그것을 함께 만들 생각은 없는 것이었다.

부엌의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고체 상태의 초콜릿 덩어리를 중탕해 녹이는 동안 언니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초콜릿 덩어리가 적당히 녹아나는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상태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아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중탕한 초콜릿을 능숙한 손길로 자그마한 틀에 담아낼 때부터 언니는 더 이상 아무런 말 하지 않았다. 조금만 실수해도 초콜릿 형틀에서 초콜릿 액이 흘러넘치거나 부족하게 채워져 고도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발휘해 그것을 채워 넣었다.

초콜릿 액을 따라내는 진 언니의 모습을 나는 조금 멀리 떨어져 서서 바라보았다. 언니의 몸속에서 돌아난 근육들이 팔과 어깨 그리고 목선을 따라 미세하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을 웬지 숨죽여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다. 매일 새벽 강행군처럼 이어지는 강도 높은 요가 아사나 수련에 단련되어온 근육의 덩어리들이 오밀조밀 들어찬 단단한 몸이 어떻게 저렇게 가늘고 부드러워 보일 수 있을까? 나는 궁금했다.

“이걸 보는 게 좋아.”

진 언니는 그렇게 말했다. 초콜릿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였다.

“차가웠던 초콜릿이 녹아서 뜨거워지고, 딱딱했던 초콜릿이 녹아서 부드러워지는 거야. 고체였던 것이 녹아서 액체가 되고, 녹아서 액체가 된 초콜릿이 굳어서 다시 고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맛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것만큼은…….”

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느릿하게 말했다.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아서 좋아. 평상시 사로잡혀 있던 생각들이 하나도 떠오르질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고체가 녹아나는 순간, 액체가 굳어가는 순간, 눈으로 바라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

나는 숨을 조금 크게 내쉬고 웃으며 말했다.

“일종의 명상이네?”

“그런 셈이지. 그나마 이렇게 인도에 와 있을 때나 초콜릿을 만들지, 한국에서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다소 시끄럽게 울렸다. 신발을 벗고 책가방을 내던지며 정신없이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뒤를 이었다.

“제이슨.”

제이슨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나는 그렇게 말했다. 진 언니의 아들인 유준을 나는 그렇게 불렀다. 그것은 그가 영어학원에서 쓰던 이름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인도로 올 때에 저 아이를 처음 본 까닭에 그냥 제이슨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편했다. 진 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는 제이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진아 이모, 안녕하세요.”

제이슨은 산란하게 뛰어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는 그대로 멈추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나는 제이슨의 저 예의 바른 인사에 매번 소름이 끼쳤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그래, 왔

어?” 라는 대답과 질문을 함께 던졌다. 이제 열한 살인 제이슨은 제 엄마보다 키가 크고 덩치도 커다랐다. 게다가 뚱뚱하기까지 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제이슨이 정말로 진 언니의 친아들이 맞느냐고 묻고는 했다. 예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양한 게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둘의 외모는 극과 극이었다. 그러면 진 언니는 휴대전화를 꺼내어 그 안에 담긴 사진을 사람들에게 찾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진 언니의 남편과 제이슨 그리고 진 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서 부자는 완전한 판박이었다. 큰 키에 각진 어깨 그리고 커다란 몸. 그 사이에 쇠꼬챙이처럼 비쩍 마른 진 언니의 모습이 기이하게 어울렸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누가 봐도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하하 웃으며 너를 닮은 딸을 하나 더 낳으라고 진 언니에게 농을 던지곤 했다.

제이슨은 냉장고에서 생수 팩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는 주둥이를 그대로 입에 넣어 물을 별컹별컹 들이마셨다. 그렇게 쏟아 넣은 물을 미처 다 삼키기도 전에 입을 열어 “엄마, 오늘 우리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라고 소리치듯 물었다. 그 바람에 그의 입에서 물이 흘러 내리고 셔츠의 옷깃이 다 젖었다. 그러자 제이슨은 한쪽 손등으로 물기를 쓱 훑어낸 뒤 다시 “뭐 먹을 거야? 어디 갈 거야? 뭐 먹을 거야?” 라고 다시 물었다.

“아들 먹고 싶은 거 먹자.”

진 언니가 말했으나 제이슨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냈다.

“아 엄마 먹고 싶은 걸 말해, 말하라고!”

제이슨이 산만하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부려도 진 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언니는 그저 초콜릿으로 채운 형틀을 유산지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떠받들어 냉장고 안으로 옮겨 넣었다. 나는 언니를 도와 식탁 위의 그릇들을 옮기고 정리했다. 제이슨은 제 엄마를 채근하는 것에 지쳤는지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재빠르게 손가락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게임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다리를 움직여 식탁 의자에 부딪는 소리를 냈다. 나는 개수대에 물을 세게 틀어 물발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비누칠한 그릇들을 행구었다.

준은 요가 학교 앞 사거리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늘고 기다란 몸은 미풍에도 흔들림 없이 꼳꼳하게 서 있었다. 유연하지도 정교하지도 않은 몸, 그러나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타고나는 물리적인 힘.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게 될 때마다 내 안에서는 뜻 모를 부아와 두려움이 함께 일었다.

“요, 와썹?”

제이슨이 준에게 인사했다. 준은 달리 대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 지어 보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잘 지냈어요?”

준은 진 언니와 제이슨 모두를 향해 그렇게 물었다. 진 언니도 “네,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하며 웃어 보였다. 나는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했다. 가까운 거리에 택시가 세 대나 지나가는 중이라고 나와 있어 나는 그중 1분 거리에 있다는 택시의 번호를 확인한 뒤 기다리기로 했다. 준은 아직 어린아이에게 불과한 제이슨과 잘 놀아주는 편이었다. 나이 대는 다르지만 마치 남자들만의 소통과 연결성을 타고나기라도 한 것처럼 둘은 처음 만났을 적부터 죽이 잘 맞았다. 둘 다 축구나 야구, 농구 같은 구기 운동을 좋아했고, 게임과 오락, 장난을 즐겼으며, 무엇보다도 식성이 비슷했다. 육류와 어류를 먹지 않는 나와 진 언니하고는 달리 두 사람은 육류, 그 중에서도 닭고기와 양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렇게 넷이서 만나는 것에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준과 단둘이 식당에 갈 적이면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 것에 그는 늘 불만을 가졌는데,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이슨이 함께 먹을 수 있으니 나는 마음이 편한 것이었다. 그것은 좋지는 않지만 편안한, 그런 종류의 편안함이었다.

1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던 택시가 좀체 오질 않았다. 택시의 위치를 확인해보려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켜자 제이슨이 내 손을 붙들며 자신이 먼저 보겠다고 했다. 그의 손에서 우악스러운

힘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을 짝 주고 이러지 말라고 말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제이슨은 오히려 나를 힐난하는 어조로 표독스럽게 말했다. 그 고집스러운 태도에 나는 자꾸만 화가 났지만 티내지 않으려 노력해야만 했다.

“내가 볼 테니까 이 손 놓으라고.”

나는 이를 짝 물고 말했다. 그러나 제이슨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이들끼리 휴대전화 한 대를 놓고 서로 자기가 쓰겠다고 싸우는 꼴이라는 사실을 나는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보다 한참 어린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 또한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다. 제이슨이 말했다.

“제가 본다고요, 줘.”

그는 우악스럽게 내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내 손에서 빼내려 했다. 진 언니는 그런 제이슨을 말리지 않았다. 그것은 진아 이모 거라는 말조차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다. 진 언니는 우리에게서 비스듬히 비껴선 채로 아직 오지 않은 택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진아 이모가 뭔가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발로 짓밟개 그 위에 올라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저 심성을 나는 당연히 사랑하지 않았다.

“이리 내놔”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결국 손에 힘을 풀어 제이슨에게 내 휴대전화를 내주어야만 했다. 제이슨이 휴대전화 어플 속 화면을 확인하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택시기사가 걸어온 전화였다. 내가 다시 내놓으라고 말하며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제이슨은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눌러 “헬로”라고 말했다. 제 엄마를 따라 인도에 와 있는 동안 제이슨은 간단한 영어 인사말과 생활 표현들을 자신감 있게 내뱉곤 했지만 정확한 문법이나 철자 같은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외국인과의 대화를 할 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중에 생각나는 단어만 내뱉을 수 있을 뿐 상대방이 쓰는 영어를 알아듣지는 못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는 택시기사가 하는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히어, 고쿨람, 요가 살라, 요가 살라”라는 말만 연신 내뱉으며 우리가 있는 곳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제이슨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나는 얼른 그의 손에서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기사에게 말했다. 나는 기사에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씩씩거리며 성을 낼 것만 같았던 제이슨은 의외로 “에이 씨발”이라는 말만 툭 던지고는 금세 준과 어울려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곧 도착한 택시에 우리는 차례로 올라탔다. 준이 앞자리에 타고, 제이슨이 뒷좌석 제일 안쪽에, 그리고 진 언니, 내가 차례로 들어가 앉았다. 누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제이슨은 먼저 나서서 마이소르 호텔로 가라고 말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나대는 저 성질머리에 나 또한 끊임없이 화가 났다. 왜 항상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먼저 해야만 하는 걸까? 그리고 그런 제이슨의 태도에 왜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저 아이의 언행을 참을 수가 없는 걸까?

“아직 어린 아이잖아.”

이따금씩 내가 제이슨에게 “너 대체 왜이래?”라고 물으면 진 언니는 특유의 차분하고도 무기력한 말투로 마치 그를 대신하듯 말했다.

“아직 어린 아이잖아. 몸만 컸지 속은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 그냥 그러려니 해.”

언니는 어떻게 저 아이의 모든 것을 참아줄 수 있는 것일까? 자기 아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 그렇다면 준은, 준은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마츠준, 너도 그래? 너도 저 아이에 대해서 전혀 화가 나지 않아? 왜? 왜 그런 거야? 왜 아무도 저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저 아이에게 화가 나고, 왜 나만 이렇게 이 화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준과 제이슨은 양고기 스테이크를, 나와 진 언니는 파스타와 샐러드를 주문했다. 준과 제이슨이 인도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냄새를 맡는 것조차 싫어

해 우리는 외식을 할 때마다 서양식 식당을 찾아다니며 서양 음식만 먹었다. 이내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제이슨은 순식간에 제 몫의 접시를 비우고는 똑같은 것으로 하나 더 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진 언니가 다시 같은 음식을 주문했고, 이내 그것이 나오자 제이슨은 그사이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겠다며 새로 앞쪽으로 밀어버렸다. 그러나 나와 진 언니는 고기를 먹지 않았고, 평상시 소식을 즐기는 준 또한 그 접시에는 손대지 않았다.

호텔 출입문 앞에는 늘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 이번에는 굳이 다른 택시를 호출할 필요가 없었다. 배가 부른 탓에 나는 좀 걷고 싶었지만 걷는 것을 싫어하는 제이슨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타야만 했다. 호텔 직원이 택시 문을 열어주어 우리는 차례로 차 안에 탔고, 제이슨은 기사에게 인사도 없이 마이소르 동물원이라고만 내뱉었다.

인도의 동물원은 동물원보다는 식물원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 동물원 입구부터 울울창창하게 늘어서 있던 남국의 꽃나무들과 코코넛 나무들. 화단에도 줄줄이 심어놓은 화려한 색채의 꽃밭. 동물 관리보다는 식물 관리에 더 힘을 쏟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가꾸어진 꽃과 나무들이 경이롭게 다가올 지경이었다. 꽃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을 따라 걷다보니 산림욕이라도 하듯 서늘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 혹시 봤니?”

진 언니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영화를 보고 원작 소설도 읽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언니가 다시 말했다.

“맞아, 나도 소설도 읽었어. 나는 원래 책은 잘 안 읽는데, 이 소설은 인도 소년이 주인공이라서 한 번 읽어 봤어. 그리고 영화와 소설 모두 시작부분에 인도 동물원이 나오잖아. 그래서인지 항상 궁금했어, 실제 인도의 동물원은 어떨지.”

그리고 보니 그 영화 속에서 묘사된 인도의 동물원 모습도 진한 녹색 빛이 어우러진 식물원과 같은 모습이었다. 언니는 계속 말했다.

“인도 소년이 호랑이와 함께 태평양에서 표류하는 내용인데, 나는 그 부분보다는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 인도에서의 장면들이 그렇게 좋았어.”

“맞아. 나도 그랬어. 특히 소설 맨 앞부분에 작가가 실제로 인도 뭍바이에서 겪었던 일들과 거기서 만난 노인네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 그리고 파이의 어린 시절과 그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 모습들이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인도 사람들과 정말 똑같아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랬어.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앞부분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다고 말하더라. 그럴 때마다 내가 이상한 사람 혹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만 같은 기분이야. 왜 다 나와 다르지? 아니, 왜 나는 남들과 다르지?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걸까?”

“모두가 다 인도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응?”

“파이 이야기 말이야. 거기서 파이의 아버지는 콜럼버스와 같이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자고 말하잖아. 정작 콜럼버스는 인도를 찾아서 떠났던 건데,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이란 걸코 인도는 아닌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준과 제이슨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하는 동안 나는 진 언니와 느릿하게 걸으며 수다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진 언니는 제이슨을 떼어놓고 나만 만나고 있을 수가 없고, 나 또한 준을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게 놔둔 채로 진 언니만 만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넷이 만나면 진 언니와 준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제이슨과 나 또한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준과 제이슨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나는 진 언니와 단 둘이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준과 제이슨이 야생 동물들을 보러간 사이 나는 언니와 함께 조류 공원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 안으로 들어서자 이곳이 정말로 남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 그림책에서나 보았을 법한 다양한 색깔의 조류들이 철창마다 칸을 나누어 들어가 있었다.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

색과 같은 원색의 새들을 나는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청록색, 보라색, 하늘색, 연두색 등 책이나 티브이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색깔의 새들이 여기저기서 지저귀고 있었다. 한동안 말없이 걸으며 새들만 구경하던 진 언니가 불현듯 말했다.

“나는 동물원이 자연에서 살아야 할 동물들을 가둬두고 돈벌이로 이용하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책, ‘파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야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야.”

그 책의 주인공 파이는 그런 말을 했다.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사냥을 하며 서로 먹고 먹힐 필요 없이 그저 쉬고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털을 가다듬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동물원 안에서 야생 그대로 행동하며, 야생에서 사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더 나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고.

“그 논리에는 아무래도 논란이 따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져…….”

언젠가 언니는 한국의 남쪽 지방에 내려가서 요가원을 꾸리며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생각을 말로 내뱉을 수는 없었다. 언니의 남편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제이슨도 서울에서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왜……, 그들과 헤어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다. 그러나 끝내 물을 수 없었고, 물을 수 없으므로, 답을 알 수도 없었다.

언니, 나랑 가자. 나랑 같이 가서, 방을 얻고, 건물을 구해서 요가원을 만들자. 사람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요가원을 운영하며 살아가자. 언니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나도 혼자서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그렇게 살자 언니, 응?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두에게서 등진 채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원하고 꿈꾸던 진정한 삶이 그곳에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곳에 진짜 내가, 진짜 내 삶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러면 행복할 거 같으니? 우리가 원하던 것을 가지면, 꿈꾸던 것을 모두 이루면, 영원한 행복의 굴레에 들어서 두 번 다시는 불행감을 느끼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로 너는 그렇게 믿어?

조류 공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길은 다시 네 갈래로 나뉘어졌다. 야생동물 구역에서 빠져나온 준과 제이슨을 만나 다 같이 매점에 가기로 했다. 그곳으로 걸어가는 길목의 울타리 너머에는 말과 사슴, 기린과 같은 초식동물들이 있었다. 특별히 눈길이 가거나 신기한 동물들은 없었지만 한 낮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 우리는 조금 느릿하게 걸었다.

“우와” 제이슨이 소리쳤다. “저것 봐”

제이슨이 손가락을 뻗어 가리키는 곳에는 얼룩말이 있었다. 제이슨이 다시 말했다. “나 얼룩말 처음 봐”

그러자 진 언니와 준이 “나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니, 나 또한 얼룩말을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단순히 흰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겹쳐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가지 색깔의 조합이 보면 볼수록 희한했다.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임에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울타리 앞에 그대로 멈추어 서서 얼룩말만 들여다보았다. 어느 누구도 먼저 발걸음을 먼저 떼려고 하지 않았다. 제이슨이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진아 이모, 얼룩말이 영어로 뭐예요?”

“지브라(Zebra).”

“그럼 ‘얼룩’이 영어로 ‘지브라’예요?”

“아니, 얼룩은 스테인(Stain), 아니면 스팟(Spot)이라고 해.”

“그럼 지브라는 뭐예요?”

“얼룩말이라니까.”

“얼룩은 스테인이나 스팟이라면서요.”

“글쎄, 지브라가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왜 몰라요? 왜 그것도 몰라요?”

내가 미간을 찡그리자 옆에 있던 준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내가 찾아볼게”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온라인에 접속해 ‘지브라’에 대해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나는 제이슨의 물음에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나 또한 지브라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다. 이것저것 검색해보던 준은 지브라가 에퀴페루스(ĕquifĕrus)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영어로는 에쿠스 페루스(Equus ferus), 즉 야생말(Wild horse)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제이슨이 화들짝 놀라며 “그럼 저게 야생동물이에요?”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준이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내가 대신 말했다.

“야생동물이라는 게 꼭 맹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뜻하기도 하는 거야. 얼룩말을 타고 다니거나, 집에서 돌보거나, 목장에서 키우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자연에서만 살아가는 말이라는 의미겠지.”

막상 내 대답을 듣고 난 제이슨은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듯 뒤돌아서며 “알았어요, 그만 가요”라고 말했다.

다함께 매점에 도착해 준과 제이슨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샀고, 나와 진 언니는 생수만 하나씩 샀다. 준은 나에게도 아이스크림 좀 맛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준과 제이슨이 매점 앞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 진 언니와 나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언니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반짝이는 것을 꺼내어 나에게 건넸다. 그것은 은박지로 포장해온 초콜릿이었다.

“네가 쓴 것을 잘 못 먹어서, 설탕을 좀 더 넣어서 만들었어. 우유도 더 넣었고.”

“고마워, 언니.”

나는 은박지를 벗긴 뒤 초콜릿 조각 하나를 집어 입 속에 넣었다. 무더운 남인도의 기후에 적당히 녹아난 초콜릿이 입 안에서 호물거렸다. 나는 혀바닥을 부드럽게 굴러 그것을 천천히 녹여 먹었다. 딱딱했던 것이, 차가웠던 것이, 사실은 부드럽고 따듯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진 언니의 초콜릿을 먹으면서 조금씩 믿을 수 있었다. 그 모든 것들에,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였다는 것을 나는 한 모금 한 모금씩 씹어 삼키기로 했다. 진 언니의 말대로, 이 초콜릿은 정말로 훨씬 더 달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카카오 특유의 씹쓸한 뒷맛이 여전히 남아 있어, 나는 그것도 내 안으로 함께 씹어 넘겼다.

김혜나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인도 마이소르에서 아쉬탕가 요가를 수련하고 요가 철학을 공부했다. 2010년 장편소설 『제리』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 소설집 『청굴』, 중편소설 『그랑 주페』, 장편소설 『제리』 『정크』 『나의 골드스타 전화기』 『차문디 언덕에서 우리는』 등이 있다.